

— 알라스카산 순록은 녹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

최근 수요의 급증에 따라 정상적이지 못한 약재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수입된 약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초학적인 증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희대 본초학 교실 안덕균 교수의 글을 실는다.

— 편집자 주 —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사슴의 종류는 7과 20屬 37種이 각지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슴과(cervidae)에 속하는 사슴의 뿔, 즉 鹿茸과 Moshinae에 속하는 사슴을 들 수 있다.

鹿茸을 약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 당나라 때 神農本草經에서부터 유래가 된다.

鹿茸은 梅花鹿(Cervus nippon)과 馬鹿(Cervus elaphus)의 骨化가 형성되지 않은 幼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鹿茸의 물량이 크게 부족하고 또 사육자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이미 골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절단한 사슴의 뿔을 건조시켜 鹿茸으로 임상에 활용해 왔다.

이미 각질화된 鹿茸은 鹿茸으로서의 효능이나 형태학상으로 가치를 상실한 鹿茸인 것이다. 그런데도 생산자들은 크고, 미관상 좋은 녹용만을 공급하여 이익추구에만 급급하고 효능효과는 뒷전으로 미룬 상태에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개방화의 열풍은 강하게 이 분야에도 몰아쳐서 소위 알라스카산 녹용(시베리아 한냉지에 서식하고 있는 Reindeer 순록의 뿔)을 마구 수입해와 녹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알라스카산 녹용은 RANGIFERINAE로 분류되는 科에 속하며 Rangiber屬 Tarandus種이다.

이를 떼면 수천년의 임상역사를 가지고 있는 梅花鹿이나 馬鹿과는 소위 亞科가 다르고 屬(Genus)이 판이하며 種(species)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순록의 뿔을 국내에 수입하여 약용으로 한 것은 약 20여년쯤 되지만 최근들어 러시아공화국에서 대량 수입되어 분별없이 가공 판매되고 있다.

梅花鹿과 馬鹿 그리고 馴鹿은 형태학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특성이 현저하게 다르다.

梅花鹿과 馬鹿은 溫帶지방에 임상하지만 馬鹿은 寒帶地方에서만 서식한다. 식성을 보아도 梅花鹿과 馬鹿은 초본식물 곡류를 주식으로 삼지만 馴鹿은 양치식물 중에서도 이끼류, 버섯 등이 주식이 된다.

생리학적으로 梅花·馬鹿은 주로 사육하며 자연 상태하에서는 소수가 떼지어 다니지만 馴鹿은 수천 마리가 동시에 무리져서 야생하는 까닭에 병원균의 감염율이 매우 높고 유독한 파리가 살아있는 순록의 피부에 항생하여 알을 까고 생활한다.

鹿茸상태에서 관찰하였을 때에 梅花鹿은 뿔의 길이가 20~30cm로 둥근 원주형이며 2~3枝로 나누인다. 털의 색은 홍적색을 띠고 길이는 3mm이다. 馬鹿과 ELK(Cervus Cannadensis)는 원주형이며 뿔의 길이가 30~50cm에 이르고 색은 적황색 또는 홍적색으로 털의 길이는 5mm내외이다. 그러나 馴鹿은 뿔이 40~50cm이나 하대를 절단해서 구입되므로 20~30cm에 이르는 중상대부분 이하이고 1~2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편원주로 흑갈색의 털이 2~3 cm에 이른다.

梅花鹿과 馬鹿은 서로 交尾가 이루어지나 馴鹿과는 交尾를 하지 않는 별개의 種類이다.

梅花와 馬鹿은 숫놈만 뿔이 나고 이 뿔만을 藥用하는데 반하여 馴鹿은 암놈에게서도 숫놈의 것에 버금가는 불이 있는데 이것의 뿔을 암수구별없이 채취 절단하여 시판하고 있다.

만약 이와같이 생태학적으로 또는 형태학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사슴류의 뿔을 분별없이 藥用한다면 모든 사슴目に 속하는 뿔들은 모두 藥으로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새로운 種에 대한 藥用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藥效성분의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藥理실험 그리고 임상실험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藥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인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하는데도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현재와 같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슴의 뿔과 유사하다고 하여 同屬 近種動物 운운하면서 써도 무방하다는 것은 無知를 자인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소비자인 漢醫師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손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梅花·馬鹿과 馴鹿의 比較表

종류 항목	科	亞科	屬	茸形態	色	毛長	茸長	食性	產地
梅花鹿	Cervidae	Cervidae	Cervus	원주형 2~3枝	홍갈색	1~3mm	20~30mm	草, 穀類등	溫帶 (中·韓·日)
馬鹿	Cervidae	Cervidae	Cervus	梅花鹿보다큰 원주형3~4枝	회색	3~5mm	30~100mm	草, 穀類등	溫帶 (호주, 뉴질랜드)
馴鹿	Cervidae	Rangiberinaer	Rangiber	편압된원주형 3~4枝	흑갈색	2~3cm	30~108cm	菌, 羊齒類등	寒帶 (시베리아)

양록업계 不況 원인과 대책

양록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양록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양록업이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더욱이 양록업계의 이런 어려움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상태로 지속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업계 내에서는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양록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올해부터 정부의 수입 개방화예시에 의해 사슴이 수입돼 사슴가격이 큰 폭

으로 하락한데다가 유통까지 마비돼 농장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발생했던 사슴피 세균오염파동 및 혐오보신제 파동등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져 주생 산물인 녹혈·녹용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양록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태가 올해를 끝으로 반전,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어 양록인들의 마음을